자동차를 소모품으로 보는 스케일

(마16:1~12)

5.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6.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7.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8.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9.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10.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11.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자동차를 소모품으로 보는 스케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중간에 미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머물고 있는 지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TV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그 때 한참 미국이 일본과의 무역경쟁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뉴스의 내용은 주로 자동차 산업에 집중이 되고 있었어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일본에 너무 많이 밀리는 겁니다, 자동차 산업에서의 무역적자를 감당할 길이 없을 정도로 커져 갑니다.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교민들도 열이면 아홉은 다 일본차를 샀습니다.
미국차를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산업이 일본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뭐 대답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던진 거지요.

그랬더니 그 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미국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의식의 문제다'
'그게 뭐냐?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도 안 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의 근본적인 자동차에 대한 의식 속에는 자동차를 소모품으로 여기는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소모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번 사용하거나 일정기간 사용하고 나서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모품과 반대되는 의미의 말이 있다 그러면, 내구재라고 할까요, 내구재?
오~랜 기간 동안을 두고 쓸 수 있는 물건에 비해서 소모품이라는 건 써먹고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소모품이라고 하는 말이, 자동차에게까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세법에는 자동차가 소모품으로 취급되는 게 아니고, 재화로 취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화로.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뺀 자동차의 가격을 세금으로 계산하는 그런 세법이 적용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소모품으로 생각을 해 버리면 거기에 치중되는 연구비, 정성, 적을 수밖에 없지요, 투자가 적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 지인과 함께 뉴욕 시내를 나갔어요.
그때 그 지인이 타고 있던 차가 마즈다 626으로 기억합니다.
마즈다 626이면 중형차지요, 캠리와 함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차인데, 근데 새 차였어요, 새 차를 타고 뉴욕 시에 나갔는데 그 번잡한 도로에서, 옐로우 캡 있지 않습니까? 뉴욕 시의 택시, 택시가 굉장히 커요, 문짝도 큰데 그 신호등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손님이 신호등에서 문을 열고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즈다 626, 제가 타고 있는 그 차의 문짝을 찍었어요, 그래 내려 보니까 찍혔어요.
그런데 그냥 타요, '왜 그냥 가냐?' 그랬더니 '이런 걸 다 신경 쓰고 어떻게 자동차를 몰고 다니느냐'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93년도였는데 저는 79년도에 나왔던 차, 제 인생의 처음 차로 우리나라 돈으로 150만원 주고 산 10년이 훨씬 넘은 차를 거의 신주 받들듯이 그렇게 모시고 다니던 시절인데, 아니 세상에 새 차! 제가 그때 볼 때는 궁전 같아 보이던 마즈다 626이 분명히 상대편의 잘못으로 찍혔는데도 그냥 가는 겁니다.

이 스케일을 저는 그 당시에 감당할 수 가 없었습니다.
새 차를 소모품으로 여기지 않고서야, 찍힌 문짝을 그대로 두고 달릴 수가 없지요.
있는 분들은 달라요, 있는 분들은 스케일이 달라요, 없는 저 같은 사람하고는…
여러분 그런데, 소모품으로 여기는 게 자동차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뒷골목 조직, 그분들의 세계에서 말단 행동 대원들이 소모품으로 전락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히틀러나 나폴레옹이 유럽을 먹겠다는 야심을 갖게 될 때, 무명용사들의 죽음은 그저 소모품일 뿐입니다.
인간도 소모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소모품에 대한 생각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간을 소모품으로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무서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아마 인류역사상 가장 큰 소모품의 스케일, 소모품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가장 큰 스케일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소모품처럼 써먹는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써먹는다, 이게 소모품을 우리가 피부에 닿게 이해할 수 있는 핵심단어인데 '써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써먹는다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까?
인간도 써먹습니다, 써먹는다는 것은 마음이 다른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마음이 다른데 가 있어요, 마음이 붙어있는 것은 다른 것인데, 지금 이것을 마음이 붙어있는 것을 위해 쓸 때, 써 먹는 소모품이 됩니다.
그렇지요? 마음이 붙어있는 곳을 위하여, 마음이 붙어있는 것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 게 다 써먹는 소모품이 되어 버리는 거지요.

내가 유럽을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 거기에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나폴레옹 앞에서 무명용사들은 다 소모품이 되어 버립니다.
개인의 야망을 위한 소모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회사 사장님이십니까?
월급을 주고, 내가 이 기업을 잘 키우기 위하여 사람을 고용했다 그러면 써먹는 거지요.

또 회사원도 자기가 먹고 사는 월급을 받기 위하여, 월급에 목적이 있으면, 사장님을 써먹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인간을 소모품으로 만들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조차도 소모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마음이 딴 데 가있으면 하나님도 소모품으로 되어버린다는 얘기에요.
하나님을 소모품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도 앞부분에서 요나의 표적얘기가 다시 한 번 나옵니다.
앞에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나왔었는데 또 반복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방사역을 마치고 오신 예수님께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여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늘로서 온 표적이라는 것은, '당신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증거를 드러내라, 다시 말하면 천국이 천국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스폰서라는 사실을 증명해 봐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맛나가 하늘에서 주어진 것처럼,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해와 달이 멈췄던 것처럼, 갈멜 산에 불덩어리가 내려 왔던 것처럼, 그렇게 당신이 하늘에서 보내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표적을 보여 달라' 똑같은 요청을 합니다.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수없이 많이 표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표적이 뭐라고요?
그것을 보면, '지금 부산까지 150km가 남았습니다'라는 걸 보면서, 부산을 생각하고 부산과의 거리를 생각하듯이, 그것을 보면 천국을 실제로 마음속에 느끼게 되는 것이 표적입니다, 천국의 표적, 하늘의 표적이.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늘이 전부 드러났습니다.
하늘의 싸인, 하늘의 간판들이 수없이 만들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때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늘을 못 봐요, 하늘을 못 봐요. 이들이 하늘을 못 본 이유가 뭡니까?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하다는 내용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악한 자가 아니고 음란한자가 아닙니다. 이들이 간음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음란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천국이 있고, 그 밑에 공중이 있고, 공중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육체의 세계, 이 땅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마음을 두는 마음자리가, 불교에서 마음자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마음을 두는 마음자리가 하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땅에 있는 육체에 마음자리를 정한 겁니다.
이것이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마치 명품백에다 된장을 담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된장도 좋고 명품백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두 개가 만나면 한없이 더러워집니다.
한없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명품백에다 된장을 담았듯이 몸과 마음은 붙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악한 것이 되고 더러운 것이 되고 추악한 것이 돼버립니다.
마음은 반드시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서 마음자리는 천국이 되어야 되고, 마음에는 하나님만을 받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가 붙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될 때, 이 악하고 음란한 상태가 되었을 때, 마음이 마치 명품백 천만 원짜리 명품백에, 깜짝 놀랐어요, 천만 원짜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하여간 천만 원짜리 명품백에 된장을 담은 것처럼, 마음이 육체에 붙어서 육체가 접하는 이 땅의 현실을 제1현실로, 우선적인 현실로 반응하고 자각하고 느끼기 시작할 때에, 어떠한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대한 표적이 보여 져도 하늘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본다고요? 이 땅 위에서, 육체로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더 나은 미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늘의 천국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그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 땅 위에서 더 번영하는 미래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 '아! 하늘이 있구나, 나는 이 땅에서만 살아야 되는 건 줄 알고 내 꿈도 비전도 전부 이 땅의 미래에 있었는데, 아! 천국이 있구나, 이 땅 위에 이 땅과는 다른 차원인 천국이 지금 내 위에 열려있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은 이 세상에서의 10년 뒤, 5년 뒤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지금의 질병이 고쳐지는 건강한 상태를 위하여 전부 써먹으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써먹으려고.

자! 주님께서 누룩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교훈이에요, 가르침이에요.
근데 왜 이 누룩을 조심하라는 겁니까? 왜!
여러분, 누룩이 뭐였지요? 천국교회에서도 누룩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담겨질 때에, 육체에 묶여서 육체가 접하는 현실을 제1현실로 느끼는 게 아니라, 육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마음에 느끼는 것이, 성령의 감각을 통하여 천국을 우선적인 현실로 느끼게 될 때에 누룩처럼 작용을 합니다.
이 몸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관계하게 되는 모든 상황과 사람관계 일 관계를 다~ 천국 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이 말한 대로 '가난에도 처하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안다'
부함도 이전의 부함이 아니에요.
마음이 천국을 먼저 우선적인 현실로 느낄 때, 이 세상에서 돈이 많아진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처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룩이라는 거예요.
모든 몸이 관계하는 이 세상의 관계들이 다 천국 적으로 이해되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이 누룩처럼 작용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누룩처럼 작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사상을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 율법을 행해서 내가 율법을 행해서 내 의의를 찾고 결국은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 땅 위에서 복 받고 잘 사는 것, 율법을 통해서 잘사는 것으로 갑니다.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은 모세 5경만을 고집하고 있고, 모세 5경이 다 언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모든 것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실리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로마 속국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의 입장은, 로마가 우리의 종교원칙, 율법과 규례와 계명 이런 것들을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로마 사람들과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고 서로 규합을 합니다.

같은 목적을 위해서, 유대사회 내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부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집단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보수여당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모세 5경을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해석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자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진보당입니다.
어쨌든 두 사람의 목적이 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마음이, 마음이 명품백에 된장 담듯이 육체에 묶여서 육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제1현실로 느끼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천국에 관한 이야기, 영생에 관한 이야기, 사두개인들은 영생을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영생에 관한 얘기조차 다~ 마음이 몸에 묶인 채로 해석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마음이 천국에 가 있는 상태에서 몸이 당하는 상황을 해석할 때, 천국 적 누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마음이 이 땅에 묶여 있을 때, 천국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땅 적으로, 이 세상 적으로 해석되고 둔갑을 해버리고 변질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의 부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사두개인들은 돈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자들입니다.

요즘 교회가 어때요?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상태 아닙니까?

마음이 육체에 붙어서 이 육체가 당하는 이 세상의 상황을 첫 번째 현실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이 땅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안정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관계를 다 변질시키는 누룩처럼 작용을 한다는 얘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전에 이방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 산다고 이방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뒤에 나타난 얘깁니다.
다시 말하면, 선민 중에 핵심 분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에쎄네파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선민사회에서 지역적으로 구분되는 선민, 혈연 상으로 구분되는 선민들 사이에서 핵심분자가 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몸에서 자유로워져서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께 가서 자기의 마음자리를 찾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의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천국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지고, 구원과 부활이 전해지는 전부 다, 이 모든 하나님과 연관된 것을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써먹는 소모품으로 바꿔 버리는 거예요.
깡패집단에서 말단행동대원을 칼받이로 내세워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 땅의 삶을 위하여 써먹어버리는 소모품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부활과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진짜, 내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살고 있는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내세를 이야기 합니다.
부활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전~부 이 땅에 살고 있는 몸과 마음이 묶여있는 이 상태의 삶을 위해서 구색 갖추기 위한 것으로 영생을 써먹고, 부활이라는 말을 써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을 주의하라,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사람과 이방인과 똑같이 이 세상 육체에 묶여있는 이유로 해서, 하나님관계를 전부 변질시키고 있다, 하나님조차 소모품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여러분 소모품이라는 거, 배우자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장로님 그런 고백하는 거 들었어요.

평생 마누라 앞세워서 살았다, 한량처럼 살았다.
그분의 연세 드신 권사님에 대한 사랑을 제 마음이 느꼈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에 그것조차 없었으면 정말 아내를 써먹은 겁니다.
그 자체로, 아내 자체에 대한 마음과 사랑이 없으면 딴 데 마음이 있으면 다 써먹는 거예요, 다 써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편들이 사업에 바쁘다, 집안일을 다~ 모르고 놔두었다 그러면, 집안에 자기자식 자기가 살 집 빨래 이런 걸 위해서 아내를 써먹는 거지요, 아내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으면.
물론 바빠서 사업에 전념한다 해서 아내에 대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여간 아내에 대한 마음이 없고 죽어버리면, 써먹는 게 돼버리는 거지요.
남편도 마찬가지에요, 돈 벌어오는 기계로 써먹는 겁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써먹는 거지요.

자! 이 육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육체에 매어있는 상태에서의 '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마음이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께 묶여야 하늘을 느끼기 때문에 십자가 말고는,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사흘이 말해주고 있는 십자가사건 말고는 하늘을 보게 할 수 있는 사건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될 때에, 이 육체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마음을 하늘에 둘 때 진짜 선민이 되는 겁니다.
땅에 두면서 하늘을 찾을 때, 하늘을 소모품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늘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변질시키는 악한 종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하늘에 둘 때, 육체는 소모품이 됩니다.
하늘과 하나님과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주님을 소모품으로 써먹으려 그러지 말고, 이 육체로 이루어진 삶을 위하여 하늘을 소모품으로 쓸려 그러지 말고,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늘에 대한 가르침을 주려 하지 말고, 육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기 위하여 써먹어야 될 소모품이라는 것을 당신의 뜻을 이루려는 목적을 위하여 우리 육체를 하나님께서 소모품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모품에 묶여 살지 마세요, 소모품에.

뉴욕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있는 옐로우 캡 문이 열리면서 찍혔어요, 덴트가 발생했습니다, 움푹 파였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육체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육체로 이루어진 삶에 푹 들어간, 움푹 파여진 자리가 생겼습니까?
흠이 납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나'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요, 이 몸으로 이루어지는 삶은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돈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좋은 대학 들어가도 그만이고 안 들어가도 그만이고.
문제는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문제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문제는 내 마음이 십자가 붙잡고 하늘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싸인을 통해서 하늘을 보는 것이고, 마음이 하늘에 가 붙는 것이고, 마음이 하늘에서 내 있어야 될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하늘을 성령님의 감각의 도움을 통하여, 내 마음이 첫 번째 현실로 느끼는 거예요.
몸이 느끼는 이 현실보다 앞서서 천국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몸이 만나는 모든 상황은 천국 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지요, 천국 적으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내 코가 달려있고 귀가 달려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동안 24시간 한 순간도 떼어내서는 안 될 내 신체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이 몸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또 우리 몸이 처한 이 상황을 소모품으로 쓰시면서 천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빛이 되라' '빛이 되라' 어떻게 빛이 됩니까?
우리 몸이 천국이 표현되어, 천국이 타서 표현되어지는 천국의 빛이 나는 천국심지에요, 심지.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그거 아시고, 소모품 자체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좀 찍혀도 그냥 타고 다니는 거지요.
일이 안됩니까? 걱정하시 마세요! 소모품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왜 천국을 이 세상을 위한 소모품으로 사용하려 그래요?
그거 미친 짓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집을 소모품 취급해버리면 안되지요.

일시적으로 살고 끝날 이 세상, 몸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을 소모품으로 여기셔서 영원한 천국이, 지금 오늘 내가 가는 곳마다 활~활, 이 육체라는 심지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전매특허 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육체에 매여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하나님을 소모품으로 소개하는 악한 누룩으로 변한 것 같은, 이 상태가 우리의 신앙세계 안에서 다시는 재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